# 민주, 바싹 엎드려 햇볕정책 지키기

## 여론 역풍 우려 정쟁 오인될 발언 자제

## 北 도발 초당 대처·與 안보 공세 반격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몸을 낮추고 있다. 대북 규탄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여권의 안보 공세에는 시간을 두면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 대북 반감이 극에 달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나 협력 등을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심도 가지만 당분간은 몸을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발언을 자제하며 정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은 피하려고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안보정국을 틈타 정략적 국정운영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포폰 논란과 4대강 문제 등이 안보정국 속에 묻히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예산 시즌과 대포폰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정국으로 민주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며 "일단은 정국을 지켜보겠지만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의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식의 '햇볕정책'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조심스레 반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남 탓으로 돌리는 지병이 재발했다. 햇볕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는 먹통', '남북대화는 불통', '외교는 깡통'인 정부가 안보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햇볕정책 타령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 정권은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사고를 대전환해야 한다. 6자 회담을 절대 발로 차면 안 된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대화에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발생한 안보정국은 내년 예산안 처리는 물론 대포폰 이슈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안보정국으로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이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성공단 대표단-민주당 간담회** 유동욱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 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단이 29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손학규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孫 "대북 강온 전략 필요… 6자회담 검토를"

## 박지원 "4대강 예산 삭감 국방 예산 전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9일 대북 정책과 관련,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와 공세적 외교 수단 확보 같은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것이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은 후자의 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안보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또한 평화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햇볕정책 책임론에 대해 "제1원칙인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수용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자기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야당 탓만 하는데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국의 긴급 북핵 6자 협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6자 회담에 복귀하면 북에 따질 건 따지고 물밑대화를 하고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혼자 걸머지고 가기엔 버겁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6.25 때 한국을 방문해 휴전협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정서를 생각해 한 일이겠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대포로 국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이때 흘러가는 강은 그대로 둬야지 왜 급하지 않은 보 준설을 하느냐"며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방, 민생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보라인 병역면제자 정리해야"

## 한나라 홍준표 최고 주장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안보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좀 정리해야 한다"며 병역면제 출신 안보라인 참모들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대북 정보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적 안보 불신은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안보 관계 참모들의 병역사항을 거론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아울러, (안보라인은 아니더라도)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군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고의로 행방불명된 게 아니냐는 등 의혹을 받았던 안상수 대표는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전수칙이 아니라 대북 정보능력 약화 내지 부재에 있다"며 "특히 합참의 정보관계자에 전혀 정보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보 정국' 이회창 주가 상승

## 대북 강경 대응 반영 대선후보 지지율 4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야기된 '안보 정국'에서 정치권 내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3%를 기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30.8%)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8.5%), 민주당 손학규 대표(5.8%)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연평도 포격 전인 지난 15일 실시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선 4.5%의 지지율로 박 전 대표와 유 전 장관, 손 대표는 물론 한명숙 전 총리,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에게도 밀리며 8위를 기록하는 등 1년 넘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6~8위에 머물렀었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은 북한의 도발로 반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한결같이 강조해온 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동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도 써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무력제재로 무모한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전쟁 불사론'과 '무력 응징론'을 앞장서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방장관 내정자 다음달 3일 인사청문회

## 여야 조속 처리에 공감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함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간사협의를 갖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12월3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월4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최대한 빨리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간사협의 도중 전화 접촉을 갖고 청문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정책연구원장 박순성 교수 임명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에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박순성(53)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또한, 민주당 윤리위원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혁신수석비서관을 지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박주현(여·47) 변호사가 내정됐다.

주요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이나 당의 기강을 잡는 윤리위원장에 40대 여성 인사를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교수는 "야 4당 및 진보개혁세력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 변호사는 "야권연대를 이루고 국민 신뢰 속에서 정권교체를 하는 정당이 되도록 윤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된 수권정당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내달 3일 FTA 세미나 민주당 전남도당

민주당 전남도당은 다음달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에서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FTA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유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장을 비롯한 이기웅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한종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 정총무 한농연 무안군연합회 정책부회장이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각보다 좋은 비누 펑미인

펑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 · 전남 · 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재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빨치는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깜박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